

주일에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2월 4일 (제117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 방심(放心)

험한 길이 편한 길이다. 왜냐? 길이 험하면 조심하니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큰 바위는 조심하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작은 돌맹이에는 자주 넘어진다. 편안한 길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 왜? 방심해서다.

방심(放心), 이는 놓을 방(放), 마음 심(心)으로,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버린 것을 말한다. 그런데 방심은 꼭 화를 부른다.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전심전력하여 무너뜨렸다. 그리고 나니 아이성 정도는 우습게 여겨져서 방심했다. 그래서 완전히 참패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38년, 내가 넘어지지 않은 이유다. 내 사전에 방심은 없다. 나는 십만 명 앞에서든 열 명 앞에서든 똑같이 설교하고, 암 환자를 안수하든 감기 환자를 안수하든 똑같이 한다. 최선과 점검을 늦추지 않는다. 바늘구멍으로도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방심하는 자에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고 경고하신다. 방심하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방심하면 접시 물에도 빠져 죽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다.’고 안도하고 방심했다가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떨어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은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한다. 마귀는 잠시 방심한 틈을 타고 들어온다. 다윗이 편안하다 할 때 마귀가 들어와 여인을 탐하게 했지 않았나. 인생에, 신앙에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 너는 어느 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는가?

“기도원 집회는 나도 살고 너희도 살기 위함임을 알라. 무더진 연장을 갈기 위함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11월 마지막 주에 추계 산상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셨다. 나무도 겨울을 대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려 자신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한 해를 결산해야 할 시점에 영혼도 집중관리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성산으로 불러 영적 보약을 먹이시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예보와 다르게 좋은 날씨는 하

다. 그는 느브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산해진미가 제사음식이니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셨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 때에 3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칙령이 발효됨을 알고도 행해왔던 것처럼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잘 될 수밖에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화형되는 줄 알면서

분으로 세계에 나가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고,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는 당당히 히스기아처럼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실까요? 이번 집회에 토스트와 커피를 아침식사로 제공한 장로들을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식당에서 봉사한 자, 설거지 한 자, 기도원 집회에 물질을 제공한 자도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



2022 추계산상집회(11월 28일~12월 1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나님의 선물이었다. 첫날 첫 시간 단에 오르신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아침저녁으로 말씀을 전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오치환 장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하계집회 때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침저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셨고, 나와 오치환 장로의 가족과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분명 이 집회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는데, 왜 다니엘은 다리오왕 때부터 고레스왕의 시대까지 권력을 잡았을까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억되었기 때문입니

도 절하지 않았습니. 이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을 불에서 건지셨고, 더욱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 기억한 줄 아느냐?” 저는 “알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어머니에게 쫓겨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는 주장에 교계에서 제명되었을 때, 300억 현금을 받고도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을 때, 미국을 옹고 뛰라며 미국 시민권을 주는 미국 땅끝회원들 앞에서 시민권을 접시 밑에 깔아버렸을 때, 맨땅에 해당하는 기

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 큰일입니다. 더욱이는 좋지 않게 기억하시면요? 다윗에게 요압이 좋지 않게 기억되니까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고벨료의 기도와 구제가, 간사함이 없는 나다니엘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한 해가 다 저물어간다. 2022년 모든 일에 전심전력했는가?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아멘! 신묘수 전도사



토스트와 케란후라이를 곁들인 아침식사



병자들을 안수하며 귀신을 내쫓으셨다



모든 것이 풍성한 식사 시간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4:16~24)



# 왜 감독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시킬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교회는 항상 사회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냐? 예배란 ‘예도 예(禮)와 절 배(拜)’로 이루어져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다’는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신6:5).

## 예배에 성공해야 삶도 성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히11:4). 아벨은 믿음으로,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 형식적인 예배, 가증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도 아닙니다.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출31:13~14). 하나님은 옛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제 칠일은 거룩한 날이므로 온전히 예배하라고 당부하셨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죽인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만난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요? 그러면 아마도 며칠 전부터 때 빼고 광고와 야단법석을 떨 것이고, 예의상 아무 웃이나 못 입는다고 땀을 내서라도 웃도 한 벌 장만할 겁니다. 당일에는 서둘러 약속 장소에 도착할 것이고, 가서는 행여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대통령과 눈 한 번 맞춰볼까 예의를 갖추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의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어찌 합니까? 입던 옷 대중 입고 예배가 시작되어서야 도착해서는 꾸벅꾸벅 졸다가

동냥하듯 현금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서둘러 나가지 않습니까?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면서 늦게 도착한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툭툭 치면서 인사나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No!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

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 하였나 이까 하느냐



총회장 이초석 목사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말1:6~7).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말1:10).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마라. 그런 예배 안 받는다. 너 아니라도 예배할 자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에 실패한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창4:12).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제가 뇌출혈을 일으켜 눈이 거의 실명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외국 집회 중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복잡했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목사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잡아 놓고는 같이 가달라는 것입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는 그에게 “내가 거기 예배드리러 온 줄 아느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래도 잡아놓은 예배인지라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이지 대중 드렸습니다. 그날 밤 눈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 한 방 얻어맞은 겁니다. 예배를 대중 드린 대가입니다. 깨달은 저는 그후로는 한 명이 있든 열 명이 있든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렸습니다. 일천 번 중 한두 번쯤은 대중, 대강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천 마리 소를 드리며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부유함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했던 이 유도가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관계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자기 몸이 드러날 정도로 여호와 앞에서 뛰고 춤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 미갈이 비웃었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고 여호와를 기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4:20)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1~24)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렷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

하신 것입니다(눅21:3).

주일에 끌려온 소처럼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아니면 놀러갈 계획 세워놓고 잠시 출석체크나 하러 오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현금시간에 지갑을 열어 관람료 내듯 현금하는 것은 현금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취해서 찬양하는 것 역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말1:8).

에이브라함 링컨이 예배에 늦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더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록펠러가 예배는 제일 앞자리에서 드리라라는 어머니의 교훈을 받들더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고별료가 이방인으로 최대의 복을 받았는지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어느 주일, 조만식 장로가 급한 일로 손님을 만나다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조만식 장로가 예배당에 도착하여 막 신발장에 신발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주기철 목사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거기서 계십시오.” 조만식 장로는 신발을 든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상태로 설교가 끝나고 주기철 목사는 “장로님,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는 신발을 든 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 만나느라 하나님 전에 늦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종에게 심령을 끼친 것을 용서해주시고,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함을 용서해주시십시오.” 조만식 장로가 매주일 예배에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늦은 겁니다. 조만식 장로 같은 분이 늦을 때에야 얼마나 황급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졸렬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도 대접받는데로 우리를 대접하신다

예배가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 위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 같이 비천한 것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뵈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오늘의 메시지 ::

# 이별 연습

만나면 헤어지고, 또다시 만나는 게 인생인가. 이게 어디 인생뿐이던가. 여름의 푸르름을 뽐내던 잎사귀들도 가을이 깊어지면 가지를 떠나 도로를 뒹굴다 사라져간다. 죽고 또 새 생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한 질서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이별이든지, 삶 가운데 흔히 지나가는 만남과 헤어짐을 우리는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어머니도 팔팔하던 노년의 시간이 100세 넘게 계속될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꺾어져 이제는 침대에 누워계신 지 3년째다. 기억력도 오락가락하고, 하루의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하지 못하신다. 눈앞에서 사라지면 함께 있는지도조차 알지 못하신다. 현재의 기억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떠주시던 밥숟가락을 ‘아~’하며 뽀뽀 받아먹던 내가 이제는 정반대로 어머니 입에 밥숟가락을 내밀며 ‘아~’ 하곤 한다.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숟가락을 보며 흐뭇해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표정을 지으셨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제 나이 든 자식은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다. 그냥 더 편찮으시지 않게 지내시다가 주님 품에 편안히 안기시길 기도할 뿐이다. 몸이 힘들다면 “아이고, 죽겠다~” 하시는데, 그럴 때면 “하나님이 초청장 보내시지 않음 어렵도 없어요.” 하며 같이 웃는다.

이렇게 날마다 나는 어머니와 이별 연습

을 한다. 긴 세월, 일제 치하부터 6·25전쟁, 그 이후 숱한 역사의 변곡점들을 지나며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그 고단했던 이 땅의 삶도 이렇게 끝을 향해 흘러간다. 우리 인간에게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또 언젠가 우리 또한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 땅의 사람들과 잠시, 혹은 영원히 이별해야 할 때가 온다. 잠시라 함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영원하다 함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으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의 순간에 가장 염원하고, 또 가장 큰 복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우리 아버지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 외 다른 것들은 어찌 되든지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그렇게 가을을 벗고 새봄을 입을 길가의 가로수들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의 가을을 지나면 우리 육신을 벗고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봄, 영원한 안식, 무엇보다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과 재회하게 될 것이다. 그 장차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오늘을 기쁨으로 이겨내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자만이 기대할 수 있는 그날이다. 그래서 오늘 잠깐의 이별도 아름다울 수 있다.

Henry Han

:: 신앙논객 ::

# 욕심의 방향을 바꾸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慾心)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4-15).

‘욕심’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가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좋게 쓰인 적이 별로 없다. 자신이 쓰기에 충분히 만족할 만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괜히 더 소유하고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다. 그렇다고 ‘분수에 맞게 살자, 형편과 주제를 알자’ 하면 괜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 않을까? 그러나 우리 욕심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의 문제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대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 또한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형선고를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간구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사38:3). 하나님은 즉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주셨다. 대체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까!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으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했을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각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좇았고, 열두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라는 타이틀은 얼마든지 노려볼 만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서 더 희생하고 섬기며 낮아질 것을 요구하셨다. 세사적인 욕심에서 거룩한 욕심으로, 욕심의 방향을 바꿔보자. 내가 속한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에 충만하여 열심으로 봉사하기를 욕심 내보는 건 어떨까. **신혁주 전도사**

# 따뜻한 사랑

우연히 자녀교육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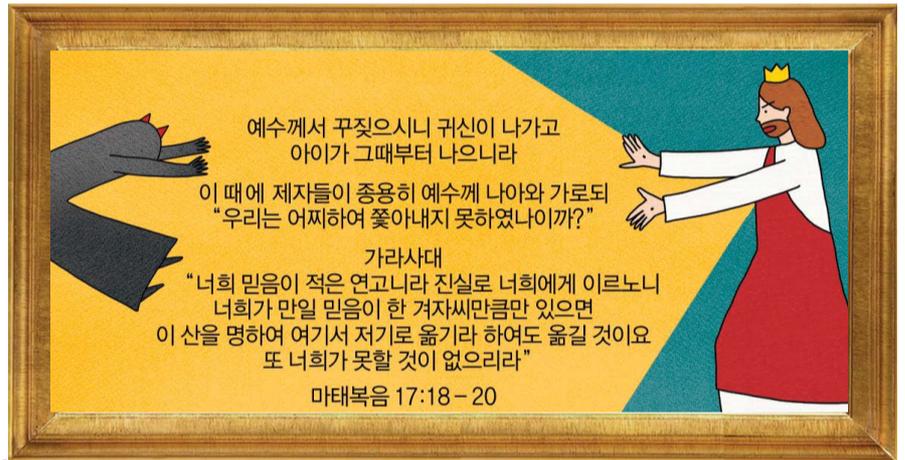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딸에게 나아가 지긋하신 어머니는 ‘자녀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것’이라고 얘기해주시는 내용이 담긴 짧은 영상이었다.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다. 그 어머니 왈, ‘자녀는 사랑만 주기에 터무니없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하루 종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직 말도 서툰 아이 때부터 영어학원이며, 피아노 학원이며 보낸다. 잘 키우고 싶어서다. 그런데 진짜 잘 키우는 방법은 사랑을 듬뿍 주는 거란다. 집이 사람의 온기를 먹고 버티듯이 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문득 목사님 말씀이 생각난다. “자식을 사육하지 말고 양육하라.”

나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았다. 오늘의 내가 있는 건,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있어서다. 물론 내 부모의 사랑이 있어서 나는 잘 자랐지만, 더욱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처럼 늘 따뜻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때론 미운 짓도 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도 그분은 늘 한결같이 사랑으로 받아주셨다. 그랬기에 결길로 가지 않았고, 나를 지켜봐주시는 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내 어린 시절을 지켜주신,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듬뿍 주자. 사랑은 최고의 성장제이니까. **이인영 집사**



:: From Internet ::

# 감사

소크라테스는 총각 시절에 여러 명의 친구와 비좁은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 여럿이 살면 불편하고 짜증이 날 텐데, 뭐가 그리 즐거워 그렇게 웃고 다닙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사니 즐겁습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뒤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둘씩 떠나고 소크라테스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럿이 살아 좋다더니, 지금은 혼자 사는데도 여전히 웃고 있으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여기 있는 많은 책들을 내 마음대로 언제나 볼 수 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들도 찾아오기 좋구요.”

그 뒤 소크라테스가 결혼을 했는데 건물의 제일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래층에 살면 위층에서 쓰레기도 던지고, 쥐도 많고, 냄새도 나는데 자네는

뭐가 좋아서 그리 웃고 다닙니까?”

“1층에 사니까 채소도 내 손으로 심을 수 있고 꽃도 가꿀 수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안 해도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이후 위층에 사는 친구 아버지의 다리가 불편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자 소크라테스는 집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전에는 1층이 좋았는데, 지금은 위층으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웃고 있으니 무슨 일입니까?”

“위층에 있으니 조용하고 멀리 좋은 경치도 보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니 운동이 되어 건강에도 좋지요.”

그 친구는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선생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플라톤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갖는 감사의 속성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살전5:18).

# 늘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내 어린 시절은 참 가난했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몸으로 딸들을 키우셨다. 엄마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딸들이 잘 자라기만을 바라시며 기도로 두 딸을 키우셨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엄마는 하나님을 만나셨고 우리는 다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엄마는 갑자기 신학교에 가신다고 하셨다. 그때 신학교는 장성 기도원에 있어서 엄마는 월요일 아침에 내려가셨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올라오셨다. 난 어린 동생과 함께 이모에게 맡겨졌다. 그때 많이 힘들었고 그 힘든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 엄마를 드리니 저희 인생을 책임주세요.”였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엄마는 주의 종이 되셨고,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며 취직도 하여 돈을 벌게 되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참 감사했다. 월요일만 빼고 매일 교회에 나가기도 모임과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심방 다니며 주일학

교 교사로 섬겼다. 유치원 교사를 하고 야근을 하며 공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다.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순수했던 20대였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은 안 하고 좋아하실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귀했던 시간. 엄마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셔서 동생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필사적(?)으로 했던 것 같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첫 급여가 89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다. 그 돈을 첫 열매로 드리고 두 번째 급여를 받았을 때 고생하신 엄마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렸었다. 엄마도 딸이 준 카드라 마음껏 사용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다. 딸이 힘들게 번 돈이라 생각하셔서 그러셨겠다는 생각이 이제 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엄마께 효도해야지, 하나님 일해야지, 가족들 잘 살려야지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 결혼하려고 보니 돈이 없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학업을 마친

지 못해 유학 생활도 다시 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우리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믿음으로 유학 생활에 나섰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말 가난한 유학 생활이었지만 믿음 좋고 나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혼한 지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좋은 아버님, 시댁 식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도를 했던 마음을 보셔서일까? 이제까지 수고 많았으니 사랑 많이 받으며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선물처럼 말이다.

어린 시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은데 우리 아버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또한 느끼고 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요. 늘 좋은 길로 인도해주셨고 지금도 그렇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 역사적 사실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옛 도성 안에는 1700년 된 성 소피아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 소장되어 있던 비밀보고서 하나가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문서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심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다.

그 내용은 이렇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소설 속의 한 인물로 치부한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꾸며진 이야기, 각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역사가 이렇듯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상 속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믿든,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믿든 그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4:14).

## Good News

오래전 영국의 서부지방 랭카셔의 항구도시 리버풀에 있는 선원들의 숙소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처 탈출하지 못한 선원들이 높은 층으로 불을 피해 도망갔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사다리를 찾아왔으나 사다리가 짧아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감한 선원 한 사람이 짧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밟고 내려오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을 밟고 내려와 구조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2천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죄로 인하여 영벌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불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다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고민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생활 속의 잠언 ::

## 예견된 꿈

오래전 딸아이의 교회 초등학교 교사였던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그 시절 함께 은혜와 교제를 나눴던 좋으신 분입니다. 며칠 전 저에 관한 꿈을 꿴답니다. 꿈 내용은 이랬습니다.

“집사님이 3~4층 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는 대체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땅속으로 꺼져 있어 지상에서 들어갔는데 건물의 4층이 나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듯이 가니까 3층, 2층 이런 식으로 아래층이 나왔습니다. 바닥면은 뽕 풀려 있어서 자갈, 흙 같은 게 보였고, 헛디디면 거기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살고 있고, 그에 따른 한국의 경제 위기도 사발한 지

경이라는 것을 높은 은행 이자로 빠져리게 실감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오래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고 분양받은 상가와 오피스텔은 지금 황금알은커녕 그나마 갖고 있던 황금을 잡아먹는 괴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지금, 그 집사님의 꿈은 예견된 꿈입니다.

그러나 꿈대로라면 아직 전체적으로 괜찮은 4층이 있고, 지금까지 위기에서 구원해주신 주님이 계심으로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힘든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 또한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여태껏은 골방에서 작은 영역을 두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위기를 의

식하며 큰 영역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인 이자 폭탄으로 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세입자를 찾는데 힘든 일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큰 기도를 품는 자녀로 양육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다스리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긍정의 힘과 기도로 서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없어진 2, 3층은 곧 복구될 것이며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 소망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꿈으로 함께하신 믿음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